**조언이 없으면 계획이 실패하고 조언자가 많으면 성공합니다.잠언 15:22 – Ted Hildebrandt와   
Chapgpt가 쓴 속담 이야기**

두 산 사이의 울창한 계곡에 자리 잡은 엘더글렌 마을은 여러 세대에 걸쳐 번영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단결과 지혜로 유명했으며,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이웃 마을 사람들이 종종 그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봄, 과수원에 역병이 돌자, 평소의 평화는 공황으로 바뀌었다. 나무들은 검게 그을린 열매를 맺었고, 잎들은 가을이 오기도 전에 말라 비틀어졌다. 수확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마을에게 이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마을 촌장 카슨은 열정적인 마음을 가진 젊은이였지만, 경험은 부족했습니다. 그는 절박함에 휩싸여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감염된 숲을 즉시 불태우고 새로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맥켄지 라는 이름의 원로가 앞으로 나섰다. "카슨 족장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런 결정은 성급하게 내려서는 안 됩니다. 땅은 오래되었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카슨은 눈살을 찌푸렸다. "시간이 없어. 매일 기다릴수록 역병은 퍼져나가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켄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조언이 없으면 계획은 실패하지만, 조언자가 많으면 성공한다." 그녀는 옛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카슨은 마지못해 협의회를 소집하기로 동의했다.

그는 전에 병든 작물을 치료해 본 적이 있는 마을 약초상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은 산 너머에서 비슷한 역병을 목격한 여행자를 데려왔다. 농부는 아니었지만 대장장이는 대장간 진흙에서 흙을 찾아내는 법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통찰력을 제시했다. 나무 사이에서 몇 시간씩을 보낸 아이들조차도 병이 들기 전 뿌리에서 도망치는 개미와 바람에서 풍겨 나오는 이상한 냄새를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했다.

각 목소리에서 진실의 조각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곧 이 역병이 나무의 질병이 아니라 토양의 질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습한 그늘에서 번성하는 독성 녹색 곰팡이에 의해 오염된 것입니다. 나무를 태우면 포자가 더 퍼져서 향후 수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뿌리에 햇빛이 닿도록 덤불을 제거하고, 흙에 재와 모래를 섞어 말리고, 곰팡이 확산을 막는 것으로 알려진 약초를 심었습니다.

작업은 느렸고, 첫 해에는 수확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가을이 되자 숲에 다시 푸른 잎이 돋아났고, 과일은 비록 수는 적었지만 건강하고 달콤했습니다.

카슨은 과일이 잔뜩 달린 나뭇가지 아래 서서 맥켄지 에게 돌아섰다 . "내 확신 때문에 우리는 거의 파멸할 뻔했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서 나뭇잎 하나를 털어냈다. "리더십이란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야, 카슨. 언제 귀 기울여야 할지 아는 거야."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매달 모임을 열어 누구든 목소리를 내고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엘더글렌은 수확뿐 아니라 마음까지 더욱 강해졌습니다. 용기만큼이나 조언이 귀중하게 여겨지고, 단결이 가장 풍성한 수확물이었던 곳입니다.

카슨은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마을 입구에 고대 속담을 새겨 넣으라고 선언했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계획이 실패하고, 조언자가 많으면 성공한다"(잠언 15:22).